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가만히 생각하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고마워할 것도, 할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에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감사할 것이 보이고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대화하게 된다.
2. 기도도 하고, 맡긴 일도 하고 행해야, 생각에서 잊은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기억이 떠오른다.
3.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딴생각만 난다. 대화의 기도를 해야 된다.
4. 목적을 두고 깨달으려고 해야, 그에 해당되는 할 일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뇌의 구조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렇게 행해 주신다.
5. 보통으로 행하는 자는 아직도 근본을 깨닫지 못한 자다. 근본을 깨달은 자는 가치를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한다.
6. 깨달은 자는 깨달은 대로 행한다. 그로 인해 달리 행하여 현실이 변해 있다.
7. 기회의 때에 못 깨닫고 놓친 후에 깨달으면 얻지 못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간구하여라. 해당되는 것은 주신다.